

## 《背影》 번역문체 비교 분석

白 水 振\*

## &lt;目 次&gt;

- |  |                          |
|--|--------------------------|
| I. 서론                                  | IV. 번역 비교와 접속어의<br>첨가 유무 |
| II. 문장나누기, 인칭 주어, 접속어의<br>상관관계 및 분석 결과 | V. 결론 및 남은 과제            |
| III. 번역 비교와 인칭 주어의 첨가 유무               |                          |

## I. 서론

올바른 번역비평이나 번역교육을 위해서는 번역 문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고 동일 텍스트에 대한 서로 다른 번역본의 비교분석도 필요하다. 번역비평은 막연하여 구체적으로 번역에서 무엇이 오역이고 무엇이 원천언어의 영향을 받은 번역어투의 표현인지, 무엇이 번역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표현인지를 지적할 수는 없다. 전통적인 번역 방법으로 언급되는 직역을 할 것인가, 의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원천언어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할 것인가, 목표언어에 맞추어 번역을 할 것인가 하는 종래의 질문을 가지고는 번역텍스트 문체의 특징을 이루는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설명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번역텍스트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들의 문체적 특징에 대해 일일이 답하기 위해서는 언어학 이론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번역텍스트를 접하면 누구나 간혹 목표언어의 체계에 비추어 왠지 매끄럽지 못하

\* 啓明大學校 中國學科 副教授

며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표현을 본다. 흔히 번역 작품의 문체적 특징에 대한 평가에는 ‘매끄럽지 못한’, ‘어색한’, ‘자연스러운’이라는 수식어나 ‘원문의 스타일을 그대로 살린 번역’, ‘완결된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은 번역’ 등의 표현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상에 의한 번역비평은 주관적이고 막연하여 구체적으로 번역 문체의 특징을 파악할 수가 없다. 왜 이러한 ‘매끄럽지 못한’, ‘어색한’ 느낌이 드는가에 대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번역텍스트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번역 문체의 양상을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해보므로써 하나의 객관적 번역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동일 작품에 대한 4개의 서로 다른 번역본에서 문장나누기와 인칭 주어, 그리고 접속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번역의 총체적 인지과정은 번역자가 원텍스트를 독해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머릿속에 재표상하는 과정, 그리고 재표상한 텍스트를 다시 목표언어로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번역문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 양식을 생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번역자의 원천언어 사용 기능과 목표언어의 사용 기능, 목표언어 텍스트 구조 규칙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때 목표언어 텍스트 구조 형성에 크게 관여하는 것이 바로 상관관계를 가진 문장나누기, 인칭 주어, 접속어이다. 문장 수와 길이, 문장 구조 변형, 주어의 생략 여부 등이 번역자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요소는 번역문체를 규명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문에서는 이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각 번역텍스트마다 문장 수, 인칭 주어, 접속어의 사용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번역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번역 오류를 찾아내고 옳은 번역 방법을 제시하겠다.

분석 대상 텍스트로는 중국현대문학작품의 하나인 朱自淸의 《背影》을 원텍스트로 하고 《중국현대문학작품선집(1)》(연변대학통신학부, [A역]), 《중국현대문학작품선》(김의진 역, [B역]), 박하정 역([C역]), 이수웅 역([D역])을 그 대응 번역텍스트로 하여 번역 문체를 비교 분석하였다(본문에서는 편의상 A, B역을 ‘연변번역’, C, D역을 ‘국내번역’이라 칭하기도

한다). 《背影》을 분석 대상 텍스트로 정한 것은 번역텍스트의 비교에 적합한 분량이고,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작품으로 이미 많은 번역본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국내 번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중역본도 출간된 번역본 [A역]과 [B역]은 중국교포의 번역 작품으로 번역이 잘 되어서 선택한 것은 아니다. 중국현대문학작품의 경우 중국교포들의 번역은 출판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어휘 사용이나 문장 표현에서 국내 번역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목표언어의 표현을 잘 살린 생생한 구어적 표현도 많아 국내 번역과의 대조 분석에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 II. 문장나누기, 인칭 주어, 접속어의 상관관계 및 분석 결과

문장 차원에서의 변형이란 문장을 나누거나 이어주거나, 문장의 길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따위, 그리고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맺어주거나 문장 자체의 종류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장의 변형이 체계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문장이 속해있는 단락, 그리고 더 나아가 텍스트 전체에 대한 통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텍스트>단락>문장>어휘의 위계질서가 각 항의 변형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결정권을 쥐게 된다. 문장구조 자체가 텍스트의 전체 의미에 대한 관여도가 낮을 경우 문장의 변형은 문법적 구조의 상이성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것과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목표언어 구문 구조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 행하는 임의적 변형이 있을 수 있다. 문장 나누기는 문장의 정확한 이해와 직역이 가져올 수 있는 지나친 문장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한 문장을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장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어에서는 한 문장(마침표) 안에 많은 절(쉼표)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문장 나누기’ 기법을 사용하여 번역해야 한다. 한국어는 SOV형 언어로 중심 술어가 문장 끝에 위치하고 어미 활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장이 지나치게 길면 논리가 명확하지 않고 독자

는 읽기에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따라서 번역에서는 문장 중간의 일정 부분에서 문장을 나누어 번역해야 한다. 따라서 문장간의 연결에서도 접속어의 사용이 원텍스트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대두되는 문제가 인칭대명사 주어(완전명사 포함)의 사용 여부이다. 인칭대명사는, 재수용과 이를 통해 문장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언어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인칭 대명사는 특히 주제와 관련하여 텍스트를 연결하는데 적당하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미 알려진 것을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어나 중국어에서는 텍스트에서 인칭대명사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어/주제 생략이 문장/절의 경계를 뛰어넘어 문장군(句群)이나 단락에까지 이어지는 零形(zero-form)의 조용 방식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문장간의 연결에서 인칭대명사나 영형의 조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 현상 기술이나 번역 실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 번역 예를 통해서 문장나누기, 인칭 주어, 접속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但最近兩年不見，他終於忘卻我的不好，只是惦記著我，惦記著我的兒子。

A역 : 그러나 뵈지 못한 이 2년동안 아버지께서는 나의 지난 잘못에 대해 모두 잊으시고 오히려 나와 내아이들 걱정만 하셨다.

C역 : 그러나 근 2년 동안 만나보지 못해서 그런지 나에게 대한 불만은 아예 잊어버리신 듯했다. /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시고 손자를 더욱 그리워하시는 눈치였다. (/ = ‘문장 나누기’ 표지)

D역 : 그러나 최근 2년 동안을 찾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아버지는 이같은 나의 불효를 다 잊으시고 다만 당신의 아들을 보고 싶어 하셨다.

[A, D역]에서는 1문장으로 번역하였으나 [C역]에서는 2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였다. 가장 잘 된 번역이다. [D역]은 문장이 너무 길어 독자가 읽을

경우 숨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반감시킬 수도 있다. [A역]은 1문장으로 번역했지만 ‘**惦記**著我, **惦記**著我的兒子’의 ‘**惦記**’를 한번만 번역하여 문장의 내용과 길이를 축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난하다. 그러나 원텍스트에서의 문체 효과를 살리지는 못했다. 원저자가 ‘只是**惦記**著我, **惦記**著我的兒子’를 ‘只是**惦記**著我和我的兒子’로 표현하지 않은 것도 ‘나’와 ‘손자’에 대한 그리움을 더 절실하게 묘사하기 위해서이다. 이번에는 다른 작품의 번역 예를 보자.

(2) 我大哥引了一个老头子, 慢慢走来; 他满眼凶光, 怕我看出, 只是低头向著地, 从眼镜横边暗暗看我。(《狂人日记》)

역1: 형은 한 늙은이를 데리고 천천히 들어왔다. / **늙은이**는 기분 나쁜 눈빛을 하고 있었다. / 그는 자기 눈빛을 내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 **그러다가** 가끔씩 안경 너머로 흘금흘금 내 동정을 살피곤했다. (김남주 역)

역2: 정말 형은 늙은이 한사람을 데리고 슬렁슬렁 다가왔다. / **그 늙은이**는 눈에 표독스러운 빛을 뿌리면서 내가 눈치를 차릴까 봐 고개를 숙이고 안경 밑으로 힐끔힐끔 겹눈질하는 것이었다.  
(《중국현대문학작품선집(1)》)

원텍스트에서는 2개의 문장(중국어 문장부호 「;」도 번역에는 마침표와 동일한 기능을 함)으로 나뉘어져 있다. [역1]에서는 텍스트 중간에 ‘늙은이’를 지칭하는 대명사 ‘그’를 한번 사용한 반면 [역2]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역1]에서는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한데 반해 [역2]에서는 하나의 문장 안에 담아서 번역하였다.

문장나누기와 인칭대명사의 사용, 그리고 접속어의 사용은 텍스트 구성에서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이점에 착안하여 4개의 번역텍스트를 서로 비교해보면 이들 상관관계의 분포도가 어느 정도 일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들의 사용 개수와 분포도를 조사해보았다.

&lt;표 1&gt;

	원텍스트	A역(연변)	B역(연변)	C역(국내)	D역(국내)
문장 수	65 (「,」=57, 「;」=8)	61	58	90	74
인칭 주어	46 (我=22, 父親(他)=24)	36 (나=18, 아버지=18)	32 (나=16, 아버지=16)	45 (나=23, 아버지=22)	34 (나=16, 아버지=18)
접속어	5 (但, 可是, 於是)	18	3	7	9

우선 가장 큰 특징은 [C역]에서 문장 수와 인칭 주어의 사용이 가장 많다는 점이다. 국내 번역텍스트 [C역]과 달리 연변 번역텍스트 [A, B역] 모두 문장 수와 인칭 주어가 원텍스트보다 적게 나타났다. 연변 번역에서는 한 문장을 지나치게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생동감이 떨어지고 만만연체의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당연히 연결어미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문장/절간에 내재적 논리가 질서정연하지 못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연변 번역에서는 문장 수가 원텍스트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접속어의 수는 [A역](18개)에서는 너무 많고 [B역](3개)에서는 너무 적다. 전통적인 한국어 표현 방식에서는 접속어의 사용이 적을수록 좋은 표현이지만 [B역]에서는 문장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문장 이어 읊기기’ 기법을 많이 사용하여 목표언어 문장의 의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C역]에서 유독 인칭 주어(45개)를 많이 사용하긴 했으나 4개의 번역텍스트 모두 인칭 주어의 수가 원텍스트의 그것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이 작품의 문체 특성상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매 문장마다 인칭 주어를 더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이번에는 텍스트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세부적인 비교를 해보았다.

- (3) ① 我再向外看時，他已抱了朱紅的桔子望回走了。② 過鐵道時，他先將桔子散放在地上，自己慢慢爬下，再抱起桔子走。③ 到這邊時，我趕緊

去攙他。④ **他和我**走到車上，將桔子一股腦兒放在我的皮大衣上。⑤  
**[∅]**於是撲撲衣上的泥土，心裏很輕鬆似的，……。

이 장면은 ‘나’와 ‘아버지’에 대한 심리 묘사가 아니고 동작을 차례로 표현한 것이다. 문장을 읽었을 때의 문체적 인상은 문장이 간결하고 빨리 진행되는 느낌을 준다. 작가는 그러한 느낌을 독자에게 주기 위해 다른 단락에 비해 한 문장 안에 삽표를 이용한 절을 많이 담지 않고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였으며,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문장마다 인칭 주어를 사용하였다. 인칭 주어를 많이 사용한 또 다른 원인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동작이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텍스트는 5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5개의 인칭 주어를 사용하고 있다.

(3)에 대한 번역텍스트 및 문장나누기, 인칭 주어, 접속어의 수는 <표 2> 같다.

A역 : **내가** 다시 창 밖으로 눈을 돌렸을 때는, **아버지께서** 벌써 빨간 굴을 한아름 사 안고 이쪽으로 오시고 있었다. 이번에 **그이께서** 먼저 손을 플랫폼홈우에 놓고 조심조심 플랫폼 홈을 기어 내려와서 다시 그 굴을 안고 철로를 건너 오셨다. **나는** 제껴 밖으로 나서 아버지를 부축해드렸다. **아버지께서** 차안으로 올라와 그 굴을 외투우에 쏟고는 옷에 묻은 흙을 털면서 한시름을 놓은 듯 숨을 후 내쉬었다.

B역 : **[∅]**다시 머리를 들어 밖을 내다보니 **아버지는** 어느새 주홍빛굴을 앞자락에 안고서 처벅처벅 돌아오고계셨다. 철길에 이르자 **아버지는** 굴을 땅에 내려놓고선 천천히 기여내린 후 다시 굴을 주어안고 이쪽으로 오고 계셨다. **나는** 황급히 차에서 뛰어내려가 아버지를 부축해 올렸다. 차에 오르자 **아버지는** 굴을 땅에 내려놓고선 천천히 기여내린 후 다시 굴을 주어안고 이쪽으로 오고 계셨다. **나는** 황급히 차에서 뛰어내려가 아버지를 부축해 올렸다. 차에 오르자 **아버지는** 굴을 그대로 나의 털외투우에 쏟아놓고선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며 일어섰다.

C역 : **[∅]**다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아버지는** 주황색

굴 한 꾸러미를 안고서 이쪽을 향해 돌아서고 계셨다. 철로를 건너야 할 것 같자 **아버지는** 먼저 굴 꾸러미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기어내려 오셨다. **아버지는** 다시 굴 꾸러미를 안고서 철로를 건너오기 시작했다. 이쪽 가까이 오셨을 때 **나는** 지체없이 달려나가 아버지를 부축하였다. **아버지와** 나는 기차에 올랐다. **아버지는** 굴 꾸러미를 내 외투 위에 내려 놓으셨다. 이제야 **당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신 듯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셨다.

D역 : [∅]다시 밖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 주홍빛 굴을 끌어안고 돌아보며 걸어오고 있었다. 철길을 건널 때 **그는** 먼저 굴을 땅에 던져 놓고 천천히 기어 내려서는 다시 굴을 끌어안고 걸어왔다. 이쪽에 다다랐을 때 **나는** 서둘러 아버지를 부축하였다. **아버지와** 나는 차 위로 올라와 굴 무더기를 커다란 외투 위에 쏟아 놓았다. **아버지는** 옷의 흙을 툭툭 털며 매우 활기분한 표정을 지었다.

<표 2>

	원텍스트	A역	B역	C역	D역
문장 수	5	4	6	7	5
인칭 주어	5	5	6	7	5
접속어	0	0	0	1	0

앞에서 각각의 번역텍스트 전체의 문장 수, 인칭 주어 수의 비율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C역]에서 문장나누기, 인칭 주어의 사용 회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접속어도 4개의 번역텍스트 중 유일하게 1개를 사용하였다(‘그리고는’은 접속부사가 아니라 어구이지만 기능은 접속부사의 역할을 한다). [C역]에서는 짧은 문장을 연이어 써서 글의 진행을 빠르게 하고 있다. A역을 제외한 [B, C, D역]에서는 원텍스트 ①의 주어 ‘我’를 번역하지 않았다. 한 문장 안에 주어가 둘 있을 경우 번역에서는 특별히 행위의 주체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선행 문장 ‘我趕緊拭幹了淚, 怕他看見, 也怕別人看見’의 주어가 후행문의 주어와



동일한 ‘我’이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원텍스트④와 ⑤는 합쳐서 번역하는 것보다 원텍스트와 동일하게 분리해서 번역하는 것이 좋다. 그럴 경우 원텍스트⑤의 번역에서는 주어를 첨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 텍스트의 번역에서는 [C역]의 번역이 원텍스트의 문체 특징에 가장 부합하고 동시에 한국어 문체의 특성도 살린 번역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각 번역텍스트마다 문장나누기, 인칭대명사의 사용, 접속어의 사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이 번역자 개인의 문체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번역자의 불필요한 단어 첨가나 생략으로 인한 것인지를 규명하여 이를 번역텍스트의 문체 연구와 번역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 III. 번역 비교와 인칭 주어의 첨가 유무

번역에서 어떤 경우에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번역자가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목표언어의 특성에 맞게 텍스트의 길이나 텍스트 내용 전개에서의 의미 전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인칭대명사의 결속 패턴은 텍스트 생산자의 문체와도 관련이 있다. 巴金的 《家》는 서구화의 정도가 심한 중국어 언어풍격으로 문장스타일이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인칭대명사의 사용이 다른 작가의 작품에 비해 빈번하다.

- (4) 覺新抬起頭去看惠。…… 他疑惑這是在做夢，他不能相信這張臉就是惠的美麗的面龐，他不能相信眼前的一切都是真實。他的眼淚模糊了。  
 각신이는 머리를 들고 주혜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 마치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쩐지 그 얼굴이 것처럼 아름답던 주혜의 얼굴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또 눈앞에 벌어진 모든 사실들이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눈앞이 온통 몽롱하였다.

(번역문: 장의원 1993:108)

중국어에서는 대명사 ‘他’가 다섯 번이나 사용되었지만 번역문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번역자는 인칭대명사의 번역에서 목표언어의 텍스트 흐름과 원천언어의 문체적 특징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번역해야 할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 번역자가 텍스트 단락의 길이나 내용의 논리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他’의 재수용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나 문장 내에서 인칭 주어의 사용 여부가 오로지 번역자 개인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텍스트적 분석이나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인칭 주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앞 장의 예 (2)에서 예로 든 번역 [1], [2] 모두 두 번째 문장에서 ‘늬은이’, ‘그 늬은이’를 사용하여 앞 문장의 ‘늬은이’를 지칭하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他’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한국어 번역텍스트에서는 ‘(그) 늬은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다른 예를 보자.

(5) 從前一個深山溝裏住著一位大嫂, [∅]到老也沒有生孩子。

역1 : 옛날 옛날에 깊은 산골에 한 아주머니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늬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필자 역)

역2 : 옛날 옛날에 깊은 산골에 어떤 아주머니가 살았는데 [∅]늬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5)에서는 存現動詞 뒤의 명사성 성분이 후행문에서는 영형의 형태로 주제가 되었다. 번역은 [역1]과 같이 두 개의 독립된 문장으로 나누고 후행문에서 주어 ‘이 아주머니’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번에는 번역 비교를 통해 인칭 주어의 첨가와 생략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sup>1)</sup> <표 1>에 알 수 있듯이 4개의 번역텍스트에서 인칭 주어 수가 원텍스트의 인칭 주어 수(46개)보다 적게 나타났다. 그런데 유독 [C역]

1) 본고에서는 인칭 주어의 첨가와 관련한 예는 편폭의 제한으로 일부부분만 언급하였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백수진(2004:432-436)을 참고. 그는 《背影》의 2종의 번역텍스트를 가지고 ‘他(父親)’가 번역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에서 인칭 주어를 45개나 사용하여 원텍스트의 인칭 주어 수와 비슷하고 다른 3개의 번역텍스트 평균치 34개보다 훨씬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원텍스트의 인칭 주어를 그대로 옮겨 번역한 것은 아니다. 4개의 번역텍스트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C역]이 다른 번역텍스트에 비해 원천언어의 문체를 살리면서도 목표언어에서의 인칭 주어의 사용과 흐름을 가장 잘 유지하였다. [C역]을 원텍스트와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본 결과 원텍스트에서 ‘我’, ‘他/父親’을 사용하였는데 번역에서 이것을 생략한 것이 9개나 되었다. 그리고 ‘我’, ‘他/父親’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번역에서 이것을 사용한 것이 6개나 되었다.

(6) 我與父親不相見已二年餘了，我最不能忘記的是他的背影。

A역 : 벌써 2년이 넘도록 아버지를 뵈지 못했다. 가슴을 허비는 것은 아버지의 그 뒷모습이다.

B역 : 나는 벌써 이태가 넘도록 아버지를 뵈옵지 못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뒤 모습은 잊을 수 없다.

C역 : 지난 2년여 동안 아버지를 뵈지 못했다. 그때 아버지의 뒷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D역 : 아버지를 못 만난 지 2년이 넘었다. 그러나 내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언제나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뒷모습이다.

원텍스트의 도입부 문장에서 1인칭 주어 ‘我’를 2번이나 사용하였다. 그러나 [B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我’를 번역에서 생략하였다. 첫 도입부에서는 주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 만약에 주어를 첨가한다면 하나만 첨가하여 “아버지를 못 만난지가 2년이 넘었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뒷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로 번역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7) 到南京時，有朋友約去遊逛，勾留了一日；[∅]第二天上午便須渡江到浦口，下午上車北去。

A역 :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길을 떠났는데 남경에서 친구의 만류로 하

루를 쉬었다. 그리고 **나는** 이튿날 오전에 포구로 건너가 오후에 북경행 기차를 타기로 했다. 그때 아버지께선 원래 볼 일로 해서 역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셨다.

원텍스트 두 번째 문장에서는 1인칭 주어 ‘我’를 사용하지 않았다. [B, C, D역]에서는 원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유독 [A역]에서만 ‘나’를 첨가하였다. 문맥상 북경으로 가는 행위의 주체가 ‘아버지’가 아닌 ‘나’임을 독자는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나’를 첨가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C역]의 인칭 주어 첨가 예이다.

(8) 他囑我路上小心，夜裏要驚醒些，不要受涼。[ø]又囑托茶房好好照應我。

“…… 그리고 감기들지 않도록 잘해라.” **아버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기차 안의 심부름꾼에게 나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분석: ‘아버지’를 첨가한 것은 바로 앞 문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작별 인사를 인용부호 안에 넣어 처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들과의 대화’에서 ‘심부름꾼과의 대화’로 장면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9) 我看見他戴著黑布小帽，穿著黑布大馬褂，深青布棉袍，[ø]蹣跚地走到鐵道邊，慢慢探身下去，[ø]尚不大難。

…… 남색두루마기를 입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철로변을 약간 휘청거리면서도 천천히 살피가고 계셨다. 이때의 **아버지**는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분석: 1개의 문장을 3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였다. 1문장은 아버지의 차림새를 묘사한 것이고 2문장은 아버지의 동작을 묘사한 것이고 3문장은 아버지께 대한 나의 느낌을 묘사한 것으로 의미 층위의 구분에 따라 인칭 주어를 첨가하였다. 그리고 1문장은 ‘나는 보았다’의 ‘-하다’형 표현을 ‘눈에 들어왔다’라는 전형적인 한국어 표현 특징 중의 하나인 ‘-되다’형으로 표현하였다.]

(10) 他和我走到車上，[ø]將桔子一股腦兒放在我的皮大衣上。於是撲撲衣上的泥土，心裏很輕鬆似的，……。

**아버지**는 굴 꾸러미를 내 외투 위에 내려 놓으셨다.

[분석: 이 부분을 [A역]에서는 “아버지께선 차안으로 올라와 그 굴을 외투 위에 싣고는 ……”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C역]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기차에 올랐다. **아버지**는 굴 꾸러미를 내 외투 위에 ……”로 번역하였다. 동작행위의 주체를 ‘아버지와 나’로 했기 때문에 뒤 문장에서 ‘아버지’를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번역자는 ‘他和我’에서 ‘和’를 개사가 아닌 병렬접속사로 번역 처리하였다.]

인칭 주어의 사용은 접속어의 사용과도 연관성이 있다.

- (11) 但他終於不放心，怕茶房不妥帖；……。
- (12) 但他終於講定了價錢；就送我上車。
- (13) 可是他穿過鐵道，要爬上那邊月台，就不容易了。

원텍스트에서는 5개의 접속어만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3개가 접속어 뒤에 3인칭대명사 ‘他’를 사용하였다. 중국어에서는 역접 표시의 접속어 뒤에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가 번역텍스트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1)에서는 [C역]이, (12)에서는 [B, C, D역]이 인칭 주어인 ‘아버지’를 첨가하였고 (13)에서는 4개의 번역텍스트 모두 ‘아버지’를 첨가하지 않았다.

중국어에서는 사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 앞에 긴 관형어형을 잘 쓰지 않으며, 혹 쓴다 하더라도 그다지 길지 않다. 상징어가 한국어의 전형적인 표현 특징 중의 하나이듯이 관형어구조 또한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이다. 따라서 번역에서는 이를 잘 활용해야 좋은 표현이 될 수 있다. 4개의 번역텍스트에서 나타난 관형어 구조 수는 <표 3>과 같다.

2) Li&Thompson(1979)은 중국학생들을 대상으로 《儒林外史》의 한 단락을 발췌하여 매 문장/절 단위마다 3인칭대명사가 들어가야 하는 곳을 체크하게 하는 실험을 한 결과 역접의 ‘但’ 앞에서 ‘他’를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원텍스트	A역	B역	C역	D역
문장 수	65	61	58	90	74
인칭 주어	46	36	32	49	34
관형어	0	2	7	6	4

4개의 번역텍스트 비교에서 관형어 구조의 사용 양상과 그 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지만 다음 예에서는 모두가 관형어 구조를 사용하였다.

(14) 走到那邊月台，須穿過鐵道，須跳下去又爬上去。父親是一個胖子，走過去自然要費事些。我本來要去的，他不肯，只好讓他去。

A역 : 그것은 똥똥하신 아버지로신 여간 힘드시는 일이 아니었다.

B역 : 원체 몸집이 똥똥한 아버지가 깊숙이 꺼져들어간 철길흙채기를 뛰어내리고 …….

C역 : 몸이 똥똥하신 아버지로서는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다.

D역 : 똥똥한 체구의 아버지는 걸기에도 힘이 들었다.

‘아버지는 몸집이 똥똥하여 …….’를 독자가 읽을 경우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지만 관형어 구조인 ‘몸이 똥똥하신 아버지로서는 …….’로 읽을 경우 독자는 쉽표가 없어도 쉬어 읽어야 한다. 글이 다소 무거운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독자는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안쓰러움을 더 절박하게 느낄 수 있다. 관형어 구조를 사용한 다른 번역 예를 보자.

(15) 我讀到此外，在晶瑩的淚光中，又看見那肥胖的、青布棉袍黑布馬褂的背影。

A역 : 여기까지 읽노라니 나의 두 눈엔 …….

B역 : 여기까지 읽고나니 뜨거운 눈물이 …….

C역 : 여기까지 읽어 내려간 나는 편지를 잠시 접어 두었다.

D역 :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 없었다.

[C역]에서만 관형어 구조를 사용하였다. 이 내용은 텍스트의 결말 부분으로 선행 문장에서는 편지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번역에서는 관형어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

또한 중한 번역에서는 하나의 절 뿐만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절까지도 선행문의 관형어로 만들 수 있다.

(16) 他少年出外謀生, 獨立支持, 做了許多大事。那知老境卻如此頹唐!

어려서부터 생계를 위해 집을 떠나 홀로 생활을 지탱해 가면서 집안의 큰일들을 도맡아 하신 **아버지**였건만 늙으막에 이토록 의기소침해 하실 줄이야. (필자 역)

#### IV. 번역 비교와 접속어의 첨가 유무

여기서 말하는 ‘접속어’란 한국어의 ‘접속부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접속부사라고 하면 ‘그리고·그러나·그래서·하지만·그런데’ 등을 이르는 말로, 선행문의 의미를 후행문에 이어 주면서 그것을 꾸미는 부사를 가리킨다. 따라서 접속 기능을 가진 접속어는 반드시 문두에 나타나야 한다. 이들은 전통문법에서는 접속사로 분류되어 독립된 품사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번역텍스트에서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접속어로는 순접 의미를 나타내는 ‘그리고’류(그리고·그러면서), 역접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나’류(그러나·그렇지만·하지만·그래도), 인과 의미를 나타내는 ‘그래서’류(그래서·따라서) 등이다. 중국어의 ‘관련사어’류(因爲 …… 所以 등)는 번역 대응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국어에서는 문장(마침표)/절(쉼표)간의 연결에서 순접이나 역접, 인과 관계 등을 나타낼 경우 ‘而且’, ‘但是’, ‘所以’ 등과 같은 접속어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접속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장/절간에 엄연한 논리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중한 번역에서는 목표언어의 문장간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적당한 접속어를 찾아 첨가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다. 또한 이 접속어의 첨가 유무는 문장 안에 여러 개의 쉼표(절)가 담겨 있을 경우 어느 부분(절)에서 ‘끊어 번역하기’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절간의 연결에서 매 절마다 주로 어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 안에 절이 많이 담겨 있을 경우 절간의 의미 연결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어에서는 문장부호(「;」)가 접속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두 언어의 이러한 차이 때문에 원텍스트보다 번역텍스트에서 접속어의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표 4).

<표 4> 번역텍스트에서의 접속어 사용 수

	원텍스트	A역	B역	C역	D역
문장 수	65	61	58	90	74
접속어	5	18	3	7	9

원텍스트에서는 모두 5개의 접속어를 사용하였다. 텍스트 전체 문장 수에 비해 결코 많지 않은 수자이다. 국내 번역 [C, D역]에서는 접속어의 수량이 적당함을 알 수 있다. 연변 번역 [A역]에서는 접속어의 사용 수자가 너무 많고 [B역]에서는 사용한 개수가 너무 적어 번역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접속 관계 표지를 생략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접속어의 빈번한 사용과 관련한 번역텍스트는 번역자 개인의 문체 특징이거나 번역 오류로 볼 수 있다.

접속어는 텍스트가 효율적으로 수용되게 하기 위한 단순한 친절의 표시일 수도 있고, 상황의 전이에 독자의 주의를 끌게 하기 위한 표시일 수도 있다. 결국 번역자에게는 접속어의 사용 여부가 문법적 필수규칙이 아닌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인 것이다. 번역자는 문장간의 연결을 질서정연하게 하기 위한 인과관계, 시간관계를 분명히 나타내고 싶을 때는 접속어를 사용할 수 있다.<sup>3)</sup> 다음 예를 보자.

3) 김미형(2000)에서는 “접속부사의 사용은 글의 앞 뒤 인과 관계에 대한 것을



- (17) 華老栓忽然坐起身，擦著火柴，點上遍身油膩的燈盞，[Ø]茶館的兩間屋子裏，便彌滿了青白的光。(《藥》)  
 화로전은 벌떡 일어나서 성냥을 그어 기름때가 낀 등잔에 불을 켜다.  
**그러자** 두 칸짜리 찻집 방안에는 희끄무레한 빛이 가득 찼다. (연변대학통신학부)
- (18) 天氣比屋子裏冷得多了；老栓倒覺爽快，彷彿一旦變了少年，得了神通，有給人生命的本領似的，跨步格外高遠。(《藥》)  
 역1 : 바깥 날씨는 집안 보다 훨씬 **춥으나** 老栓의 기분은 오히려 상쾌하였다. (연변대학통신학부)  
 역2 : 날씨는 집안에서보다도 훨씬 추웠다. **하나** 노전에게는 도리어 상쾌하게 느껴졌으며, …… (김시준 역)
- (19) 這藤野先生，據說是穿衣服太模糊了，有時竟會忘記帶領結；冬天是一件舊外套，寒顫顫的，……。 (《藤野先生》)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후지노 선생은 옷차림에 등한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넥타이 매는 것까지도 잊어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겨울이면 낡은 외투를 걸치고 다니는데 그 행색이 …… (연변대학통신학부)

원천언어에는 모두 접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목표언어에서는 접속어 ‘그러자’, ‘그러나(=‘하나’), ‘그리고’를 첨가하거나 접속어미(‘-으나’)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병렬 표시의 접속어 사용은 텍스트가 효율적으로 수용되게 하기 위한 단순한 친절의 표시이고 역접의 접속어 사용은 상황의 전이에 독자의 주의를 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원텍스트《背影》에서의 접속어의 사용 양상과 그 대응 번역 텍스트를 살펴보자.

- (20) ① 他再三囑咐茶房，甚是仔細。但他終於不放心，怕茶房不妥帖；……。 [12문장]  
 ② 他便又忙著和他們講價錢。我那時真是聰明過分，總覺他說話不大漂

분명하게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므로 글의 질서정연한 인상을 이룰 수 있는 한 요인이 된다. …… 접속부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 글이 서정적이라기보다는 지성적인 측면을 강하게 드러내게 되는데, ……”라고 언급하였다.

- 亮，非自己挿嘴不可。**但**他終於講定了價錢；就送我上車。[22문장]  
 ③ 我看見他戴著黑布小帽，……，蹣跚地走到鐵道邊，慢慢探身下去，尚不大難。可是他穿過鐵道，要爬上那邊月台，就不容易了。[37문장]  
 ④ 他和我走到車上，將桔子一股腦兒放在我的皮大衣上。**於是**撲撲衣上的泥土，心裏很輕鬆似的，……! [44문장]  
 ⑤ 他待我漸漸不同往日。**但**最近兩年不見，他終於忘卻我的不好，……。[55문장]

<표 5> 원텍스트의 접속어와 대응 번역텍스트의 접속어

	원텍스트	A역	B역	C역	D역
문장 수 번호	① 1-12문장(但)	그러나	∅	그래도	그러나
	② 13-22문장(但)	∅	∅	그러나	하지만
	③ 23-37문장(可是)	그러나	하지만	∅	∅
	④ 38-44문장(於是)	∅	∅	∅	∅
	⑤ 45-55문장(但)	그러나	그러다가	그러나	그러나

원텍스트에서는 접속어의 사용이 한 곳에 몰리지 않고 균형을 갖추어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於是’ 하나만 빼고는 모두 역접을 사용하였다. 중국어에서는 순접의 경우 접속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문장간의 논리관계가 엄연하게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개의 번역텍스트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접속어의 사용이 국내 번역 [C, D역]은 사용 여부가 일치하지만 연번 번역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⑤의 55문장에서는 4개의 번역텍스트 모두 접속어를 사용하였다.

[20-⑤의 번역]

A역 : [단락 전환 ]그러나 뵈지 못한 이 2년 동안 아버지께서는 ……

B역 : 그러다가 근간에 이태간 서로 그림계 갈라져 있는 후부터 ……

C역 : 그러나 근 2년 동안 만나보지 못해서 그런지 ……

D역 : 그러나 최근 2년 동안을 찾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

[A역]에서는 단락을 바꾸어 접속어 ‘그러나’를 사용하였다. 역접 표지 접속어의 사용만으로 충분한데도 단락까지 바꾼 것은 번역자가 상황의 전이-아버지의 나에 대한 변화-를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컸기 때문이다. 원텍스트에는 순접의 접속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번역텍스트에서는 목표언어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때론 접속어를 첨가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A역]은 접속어를 18개나 사용하여 다른 번역텍스트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만큼 불필요한 접속어가 많다는 것이다. [A역]과 [D역]에서 부자연스럽게 사용된 접속어는 다음과 같다.

[21-A역]

- ① “기왕 당한 일을 어찌하겠니? 산 입에 설마 풀칠이야 못하겠니?” 라고 침착하게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부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  
[분석: ‘집으로 돌아간 우리 부자는……’과 같이 관형어 구조로 번역하면 접속어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
- ②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길을 떠났는데 남경에서 친구의 만류로 하루를 쉬었다. **그리고** 나는 이튿날 오전에 포구로 건너가 오후에 북경행 기차를 타기로 했다.  
[분석: 19-D역의 분석과 동일함]
- ③ 우리는 강을 건너 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차표를 사는 동안 아버지께선 짐을 지키고 계셨다.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접속어가 불필요함]
- ④ 그런데 짐이 좀 많아서 역부들에게 돈푼이라도 쥐어줘야 했었다. **그래서** 아버지께선 역부들과 한바탕 흥정을 벌이셨었는데 …….  
[분석: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기에 접속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님]
- ⑤ …… 아버지께선 좀 기우뚱하시면서도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히고 플랫폼홈을 내려가셨다. **그러나** 철로를 건너 저쪽 플랫폼홈의 벽을 기어 오르실 때의 모습은 여간 힘들어 보였다.  
[분석: 역접관계로만은 볼 수 없음]
- ⑥ 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뺨을 적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나는 인차 그것을 닦아버렸다.
- ⑦ 또 아버지께서는 쓸쓸한 만년이 주는 괴로움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

**래도** 때로는 가슴에 맺히는 울분을 밖으로 터뜨리시기도 하고 …….

[22-D역]

- ① 남경에서 시내 구경을 약속한 친구가 있어 우리는 그곳에서 하루를 묵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강을 건너 포구로 가서 오후 기차를 타고 다시 북경으로 가야 했다.

[분석: ‘북경으로 갔다’의 과거형일 경우 ‘그리고’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아버지 그만 들어가세요.” [단락 바뀜]

**그러나** 아버지의 시선은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석: ‘그러나’ 대신 ‘그때’, ‘아버지는 내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등의 표현을 쓰거나 ‘그러나’를 생략하는 것이 좋다.]

각 번역텍스트에서 부자연스럽거나 잘못 사용한 접속어 수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번역텍스트에서의 틀린/부자연스런 접속어 사용 수

	A역	B역	C역	D역
사용 수	18	3	7	9
오역 수	7	0	0	2

[A역]에서는 잘못 사용했거나 불필요한 접속어가 7개나 된다. [B역]에서는 하나의 문장을 너무 길게 늘어뜨리다 보다 결과적으로 접속어의 수도 가장 적게 나타났다. [C, D역]은 모두 접속어의 사용이 적당하나 [D역]에서 오역이 2개나 나타났다. 이 오역은 번역 문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 양식도 아니고 원텍스트구조의 전이도 아니다. 번역자의 목표언어 사용 습관이나 번역전환 과정에서의 혼동으로 볼 수 있다.

## V. 결 론

번역 문체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본문에서는 언어학적인 각도에서 4개 번역텍스트의 문장/절 나누기와 인칭 주어, 접속어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각 번역텍스트마다 문장 수, 인칭 주어, 접속어의 사용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번역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번역 오류를 찾아내고 옳은 번역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내 번역 작품과 연변 번역 작품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번역 문체와 번역 방법을 더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다.

[A역]은 접속어의 사용 수(18개)가 원천언어의 접속어 사용 수(5개)나 목표언어 문장나누기 수(61개)에 비해 너무 많고 잘못 사용한 것도(7개) 많았다. 관형어적 표현도 다른 번역텍스트에 비해 적었다(2개). [B역]은 접속어의 사용이 너무 적어(3개) 문제였다. [A역](61개), [B역](58개) 모두 문장나누기가 국내 번역 [C역](90개), [D역](74개)에 비해 너무 적어다보니 인칭 주어의 수도 더불어 줄었고 그 결과 간절체보다는 만연체의 지루한 느낌을 준다. [C역]은 다른 번역텍스트에 비해 문장나누기(90개)와 인칭 주어의 수(45개)가 가장 많고 접속어의 수(7개)가 [D역](9개)과 비슷하였다. 인칭주어의 수가 원텍스트의 인칭 주어 수(46개)와 비슷하였다. 인칭 주어의 대응 번역이 일치하지 않아도 원천언어의 문체 특징을 잘 살리면서 목표언어의 흐름을 잘 유지하였다. 또한 인칭 주어와 접속어의 수가 가장 많았음에도 오역이 없었다. [D역]은 문장 수(74개)나 인칭 주어의 수(34개)가 [C역]보다는 적었으나 목표언어의 표현을 잘 하였다. 다만 틀린 접속어의 사용이 2개 있었고 부자연스러운 접속어의 사용도 1개 있었다.

본고의 번역 목적이 일반적인 문학 작품의 번역 방법과 번역 교육에의 활용에 있다보니 정작 특정 작가나 작품의 문체 특징과 여기에 부합하는 번역 표현법에 대한 준거나 설명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리고 텍스트구조를 이루는 주요 요소-문장나누기, 인칭 주어, 접속어-의 상관관계만을 가

지고 텍스트언어학적 접근방식으로 번역문체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번역문체 전부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설명은 제공했다고 본다. 초보 번역자는 전문 번역자에 비해 번역투나 오역을 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번역교육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번역투의 유형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발췌하여 이를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번역 훈련을 시켜주어야 한다. 그러면 번역텍스트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목표언어 체계에 적합한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목표언어의 보호도 가능할 것이다.

편폭의 제한으로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背影》 번역텍스트의 전체적인 문체 분석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휘 등가, 문화적 등가, 통사적 등가에 대한 분석도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 번역의 예를 들면, “我身體平安, 惟膀子疼痛利害, 拳著提筆, 諸多不便, ~”에서 [D역]은 ‘筆’를 ‘연필’로 번역하고 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서 볼 때 ‘붓’으로 번역해야 한다. 문화적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번역법이다. 통사적 측면에서의 번역 비교를 보면, 예3)의 ⑤ ‘於是撲撲衣上的泥土’에서 [A, B, C역] 모두 ‘옷에 묻은 흙’으로 번역했는데 [D역]만 ‘옷의 흙’으로 번역하였다. 원텍스트의 구조대로 번역한 것이다.

#### <參考文獻>

- 박갑수,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 1994.  
 태평무, 《한조번역이론연구》, 후룡강조선민족, 1992.  
 장의원, 《중국어번역기초》, 연변대, 1993.  
 김윤진, 《불문학텍스트의 한국어번역 연구》, 서울대, 2000.  
 Paul Simpson/성창섭 역 《영어문체의 언어학적 분석》, 한국문화사, 2002.  
 텍스트연구회, 《텍스트언어학》, 서광학술자료사, 1993.  
 Bell, R.T/박경자·장영준 譯, 《번역과 번역하기-이론과 실제》, (Translation

-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1991), 고려대학교, 2000.
- J.C.Catford/穆雷 譯, 《翻譯的語言學理論》(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旅遊教育, 1991.
- 이승권, <번역의 방법으로 본 비교 문체론>, 《康星旭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1998.
- 김미형, <문체 분석의 실제(1)>, 《어문학연구》 9, 상명대 어문학연구소, 2000.
- 조선영, <번역본을 이용한 문체연구방법 고찰: 시가 나오야의 영역본 이용>, 《일어일문학연구》 62, 2007.
- 김정우, <번역투의 성격 규명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번역학연구》 8, 2007.
- 곽성희, <영한번역에 나타난 결속구조 전환양상>, 《번역학 연구》 3, 2002.
- 민난식, <문체론적 번역방법론: Le Petit Prince의 영어·한국어 번역본 비교>, 《번역학 연구》 6, 2005.
- 신지선, <아동문학번역에서의 가화성>, 《번역학 연구》 6, 2005.
- 도희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한국어 및 중국어 번역본의 비교를 통해 본 수사적 논리 전개 방식의 차이>, 《통역번역연구소논문집》 9, 2005.
- 백수진, <중한 번역텍스트의 번역 문체 비교>, 《중국어문학논집》 49, 2008.
- 백수진, <중한 텍스트 결속성 비교와 번역>, 《중국학연구》 28, 2004.
- 張美芳·黃國文, <語篇語言學與翻譯研究>, 《中國翻譯》 第3期, 2002.
- 張美芳, <從語篇分析的角度看翻譯中的對等>, 《現代外語》 第1期, 2001.
- 陳 平, <漢語零形回指的話語分析>, 《中國語文》 第5期, 1987.
- 徐赳赳, <敘述文中“他”的話語分析>, 《中國語文》 第5期, 1990.
- Li,C.N. & Thompson,S.A. “Third-person pronouns in Zero-anaphora in Chinese discourse.” in: T.Givón,ed., Syntax and semantics, Vol. 12. Discourse and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 -분석 대상 텍스트-

- 박하정 역, 《아버지의 뒷모습》, 태학사, 2000.  
 이수용 역, 《중국차 향기 담은 77편의 수필》, 1994, 지영사.  
 《중국현대문학작품선집(2)》, 연변대학통신학부, 1987.  
 김의진 역, 《중국현대문학작품선(상)/뒤모습》, 민족, 1990.  
 김남주 역, 《광인일기》, 도서출판 눈, 1993.  
 《중국현대문학작품선집(1)/약/광인일기》, 연변대학통신학부, 1987.  
 김시준 역, 《루쉰소설전집/약/광인일기》, 중앙일보사, 1989.

## &lt;中文提要&gt;

本文將朱自清作品《背影》的四個譯本進行了一些具體的比較研究，來探討翻譯處理過程，運用其結果設定一種翻譯規範，並將其運用於翻譯教學中。漢譯原文出自江蘇教育出版社的朱自清全集第一卷的“背影”，韓譯原文分別出自中國現代文學作品選集(1)(簡稱“A譯”)、中國現代文學作品選(上)(簡稱“B譯”)、박하정의翻譯(簡稱“C譯”)、이수용의翻譯(簡稱“D譯”)。本文主要在語言學的角度，對斷句，人稱代詞（包括完全名詞）及連詞的相關關係進行了分析，因為這些相關關係在考察翻譯文體過程中擔當著極其重要的作用。分析結果如下：

	原本	A譯本	B譯本	C譯本	D譯本
句子數量	65	61	58	90	74
人稱主語	46	36	32	45	34
連詞	5	18	3	7	9

本文根據此分析結果，針對各翻譯文本在句子數量，人稱主語及連詞使用中出現的差異現象，糾明其原因。同時為將其運用於翻譯教學中，本文還



找出其中的錯誤，並闡明了正確的翻譯方法。

주제어 : 翻譯文體, 斷句, 人稱代詞, 連詞, 翻譯批評